

보도시점 2026. 6. 23.(화) 배포 시 배포 2026. 6. 23.(화)

최근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며, 여름철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 지원 중

< 주요 보도내용 >

6월 23일(화) 조선일보에서 “고랭지 배추 한 포기 ‘2만원’ 왜?”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>

“고랭지 배추 한 포기 2만원” 사례는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2024년 10월의 예외적 사례이며, 2026년 6월 하순 현재 강원, 경북 등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 봄배추 가격은 작황호조로 전·평년 대비 낮은 상황입니다.

* 배추 도매가격(가락시장 상품기준): (6월 하순) **1,662원/포기**(전년비 28.7%↓, 평년비 33.6↓)

또한, 7월에서 9월까지 강원도 고랭지 일원에서 대부분 출하되는 여름 배추도 현재까지 기상호조로 작황이 양호한 상황입니다.

정부는 여름철 폭염, 폭우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대비하여 생육관리 지원(약제·영양제, 멀칭필름, 예비묘 공급 등)을 확대하고 있으며, 일시적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봄·여름 배추 2만톤 이상(전년대비 14%↑)을 사전 구매 비축하는 등 여름철 및 추석 성수기 배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, 소매가격 상승 시 대·중소형 마트, 전통시장 등 주요 소비처에서 정부 할인지원(최대 40%)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배민식 (044-201-2231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욱 (044-201-2232)